

- 본문 : 요한계시록 4장 1~3절
- 제목 :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라!”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 마음의 문을 열며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어둡고 힘겨운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강렬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붙드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보좌로 교회를 초대하여 강렬하고 황홀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교회에게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계3:21), 그 보좌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어떠한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성에 갇혀 있는 우리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그리면서 이 땅의 환난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에 대해서 의심하며 그 분이 전능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이 일 후에”(계4:1a)는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땅 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언급할 때 교회들이 처한 환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계 2:9; 3:9)
2.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늘에 보좌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계4:2).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계4:3)
3.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2b)는 온 우주만물의 총사령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통치를 받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4. 당신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이 땅의 보좌를 손에 넣고 있는 자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이”(2b)에 대한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삶의 열매를 거두며

현실만 바라보면 그 가운데 득세하는 악과 불의로 말미암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초월하여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능력을 경험하면 아무리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도 이겨나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현재의 암담한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고, 아담 때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진리를 진실로 믿고 확신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사도 요한처럼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도다!”(2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깨어 있습니까? 내 믿음을 깨우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서 구체적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말씀기도제목

1.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기록하시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 이해에 대한 “영적 균형 감각”을 갖게 하옵소서!
2. 영남지역 산불 이재민과 강진 소식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몸부림을 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 앞에서, 환란 가운데서도 “보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도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